

갈등 생기면 ‘나’를 버려라. 싸움은 없다

기독교 신학자 니터·티베트 불자 코넬 부부



폴 니터(Paul F. Knitter · 71)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이면서 종교신학, 종교대화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학문적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종교간 대화에도 깊이 참여해 온 학자다.

그는 가톨릭 사제에서 환속한 비교종교학자로 가톨릭 모태신앙인으로 사제 수업을 받아 성직자가 됐으나 30세 무렵 환속했다.

달라이 라마, 데스몬드 투투 등과 함께 평화평의회국제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해 왔고, 무슬림, 힌두, 불교인들과의 심층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니터 교수는 오랫동안 불교를 연구하며 명상수행을 해왔으며 몇 년 전에는 티베트 불교 전통으로부터 공식적 수계도 받아 공식적으로 불자-그리스도인(Buddhist-Christian)이 됐다.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그의 별명은 연꽃 치유자(Lotus Healer)다.

캐서린 코넬(Catherine Mary Cornell · 56)여사는 제이버리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학위(1995)를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사회사업 석사학위(1998)를 받았다. 그 후 줄곧 임상심리복지사로서 가정폭력, 성적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희생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활동을 해왔다. 불교 수행자인 코넬 여사는 불교의 명상 수행을 그의 사회운동과 치유활동에 통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의 스승인 라마 존 맥크란스키가 창립한 ‘활동적 자비를 위한 재단’의 공식 교사중 하나로 뉴욕에서 일반인, 사회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자비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글=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의 불교-기독교간의 종교 갈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된 상태다. 이러한 종교집단간의 갈등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술하게 볼 수 있다.

시어머니의 종교는 불교인데 며느리의 종교가 기독교여서 제사문제도 갈등을 겪는다던가, 무교인 남편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으로 데리고 가기위해 애쓰는 아내를 종종 볼 수 있다.

폴 니터 교수 부부의 종교도 다르다. 서로 갈등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서로에게 도반이자 서로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폴 니터 교수는 가톨릭, 부인인 캐서린 코넬은 티베트 불교신자다.

다원주의 신학자 니터 교수와 불자인 코넬 여사의 결혼생활은 보기 드문 불자-기독교인 가정의 한 예로 세계 지식인과 종교인들에게 주목 받아왔다.

코넬 여사는 일찍이 불교로 개종한 후 오랫동안 불자의 삶을 살아왔다. 코넬 여사는 대학시절 명상 수행을 접하고 1970년대 후반에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코넬 여사는 “1991년 인도로 여행을 갔는데 보드카야의 보리수 나무 밑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당시에는 불교에 대해 잘 몰랐지만 1992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난 후 기독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느꼈다”며 “가톨릭 신부였던 친구가 북미권에서 유명한 비구니 스님인 페마 초드롬(Pema Chodron)의 범문테이프를 건네줬다.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고 매일 수행하면서 기독교가 치유하지 못한 부분을 불교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31일~2011년 1월 6일 7일간의 팍팍한 한국일정을 마친 티라 지치고 짜증났을 법도 한데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빛은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종교가 다른 부부의 생활은 어떠할까. 니터 교수는 “매주 일요일 뉴욕에 있는 가톨릭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캐시(코넬 여사의 애칭)도 종종 미사에 참여해 성찬의 전례식(밀떡과 포도주를 받는 의식)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폴 니터 교수 부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30분 정도 명상을 함께 한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일정에 든다.

니터 교수 부부는 니터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매일 일요일 저녁마다 명상수행 모임을 이끌고 있다. 코넬 여사는 자비명상지도자로 사람을 모집하

고 명상수행을 지도한다. 니터 교수 부부는 불교 수행이 부부간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니터 교수는 “가끔 내안에서 분노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불교의 ‘알아차림(awareness)’이 도움을 준다.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사라진다. 그 효과는 굉장하다”고 말했다.

코넬 여사는 “가끔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종일 명상을 한다. 해변을 걸으면서, 집에서 명상을 한다. 이를 정도 그렇게 집중명상을 하고 나면 잠잠각, 걱정 등은 사라지고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계만 해도 부부사이의 갈등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 부부는 일반인들의 종교간 소통을 위해 조언했다.

니터 교수는 “개인적·신학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그들의 관점을 존중해줘야 한다. 내가 캐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종교도 존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학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신(神)은 너무 커서 한 종교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방편으로 신이 나타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 불교를 접한 경험에 대해 니터 교수는 “책과 학문적 대화들만 불교를 공부해온 나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불교가 살아있음을, 생동감있는 한국을 느꼈다.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하는지 스님과 재가자들을 통해 배웠다”며 “미국 기독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비해 불교의 수행은 매일 일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 한국의 간화선을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명상과 접목해 보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불교는 일본불교, 미국의 젠센, 티베트 센터 등을 통해서 접했지만 화두 수행은 매우 흥미롭고 미스터리하다. 간화선 수행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국으로 돌아가 진제 스님이 주신 화두를 평생 불독고 수행하면서 미국에서 자비명상을 지도하는 존 맥크란스키와 수행법을 접목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니터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불교-기독교간의 갈등은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신이 불자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이전에 당신 그 자체가 중요하다. 긴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각자의 테두리를 벗어던지고 강한 결속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럴 때 서로에 대한 분별은 사라지는 것이다”며 “남북문제와 같은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서로를 결속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위기가 기회다”고 말했다.

첫눈에 반해 도반의 삶 결심한 지 28주년

매일 30분 명상수행이 부부갈등 막아

있게 된다”며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명상의 효과는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8번째 결혼기념일(12월 31일)을 맞이한 두 부부는 1980년 친구의 소개로 저녁 식사자리에서 만났다. 성직자였던 니터 교수가 환속한지 5년 뒤였다.

둘은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사회 문제와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식사 모임에서 니터 교수는 코넬 여사의 식성을 보고 ‘이 여자다’ 싶었다.

니터 교수는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 샌드위치에 앤초비(유럽식 멸치)를 넣어 먹는 여자는 캐시가 처음이었다. 이것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넬 여사는 “폴을 만나기 전에 이혼의 아픔이 있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실수를 겪고 싶지 않았는데 폴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감동한 끌림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 종교간 대화의 전문가이다. 그의 전공은 부부사이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니터 교수는 “종교간 대화와 같은 특정한 주제를 나누는 대화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의 분별과 생각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자세로 상대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넬 여사는 “나를 방어하는 자세를 버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매일 둘만의 공간에서 30~45분가량 하루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며 “이렇

코넬 여사는 이웃 종교인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기를 강조했다. 그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것은 서로를 배우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각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오로지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 기독교의 경우 외부인을 환영하고 가스펠을 부르고 누군가를 도울 때는 건설적으로 함께 일한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혼 28주년을 맞은 니터·코넬 부부. 두 부부는 매일 아침 30분 명상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불교의 ‘알아차림’과 분별심을 버리고 경청하는 자세가 부부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현지사 소개 그 열세번째 주제 - 천도재 -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미증유한 천도대재 윤회생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조상님께 효를 다하라

사후세계를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천도는 불가능

사람의 몸 안에는 영혼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종교를 불문하고 영혼체가 몸을 빠져나와 중음계에서 떠돌거나 명부에서 심판을 받고 육도(지옥·아귀·축생·인간·수라·하늘) 중 한곳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천도(薦度)란 영가(영혼체)가 지금 있는 곳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천도제들은 지옥과 하늘 세계를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영혼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천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도는 인과법에 근거한 것. 어떠한 인(因)으로 천도되는가?

한사람의 평생의 삶이 반영되어 다음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집전자의 부처님께 대한 발원으로 무주교훈, 지옥, 축생의 과보를 받은 영가가 하늘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천도가 되기 위해서는 삼계의 범왕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 여야 합니다. 지옥을 관장하는 지장보살님(시방여래불)과 그 휘하 열시왕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그 분들을 뵈고 결정을 이끌어낼 대성자의 법력과 발원이 필요합니다. 그 대성자란 견성한 성자도 아니며 보살도 아닌 다른 어떤 불과를 증한 붓다여야만 합니다.

수배가 천도의 시작, 현지사 천도제의 실체를 밝힌다

현지사의 천도제는, 천도제가 접수되면 큰스님께서 삼매에 들어 직접 영가들을 수배(테리고 오는 것)하시며 경우에 따라 부처님과 여러 성존님들께서도 함께 작업하십니다. 물속이나 땅속에 숨은 영가들은 문수보살님께서 무량여종광으로 수배하시고, 지상이나 허공은 지장보살님께서 수배를 하십니다. 큰 신통을 갖춘 영악한 영가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직접 수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가는 지장보살님께서 열시왕에게 하명하시고 다시 육사쪽으로 하달되면 팔만사천 지옥 중에서 인연영가를 찾아 지장공 별궁으로 압송하게 됩니다. 축생계의 영가는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그 축생을 찾아 영혼체를 빼내어 데려오게 됩니다.

영가가 복을 쌓도록 해주어야 한다

부부 각각의 친·외가족 40여명의 조상님들과 부처님께서 그 집안 내력을 보아 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신 3~40명의 윤회 혹은 방계 무주교훈 조상영가님을 포함하여 80여

명 정도의 영가들을 집전장소로 구인합니다. 이때 이들에게 복을 쌓게 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 날 수 있는 원인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공덕으로서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 공양은 다른 천도제들과 달리 화신의 부처님이 아닌 보신의 부처님께 대한 공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신의 부처님께 대한 공양은 붓다회상이 아니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도 후 집전장소의 청정성 회복은 수행도량의 필수항목

천도 후 영가들의 탁한 기운은 집전 도량을 오염시킵니다. 실제 능력 없는 천도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가의 기운으로 구정물처럼 혼탁해졌고 심지어 천도되지 않은 영가들이 그곳에 머물러 귀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수행도량이 아닙니다. 현지사에서는 천도 후 영가의 탁한 기운을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정화하시어 오�히려 천도제 이전보다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현지궁 현지사는 보신의 부처님들께서 상주하시는 곳이기때문에 모든 면에서 항상 청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위자의 업장소멸과 거주지의 정화

천도제 전후로 불보살님이나 많은 성존님들께서 복위자(재를 지내는 사람)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 영적인 청소를 해주십니다. 또한 복위자는 효를 행한 공덕으로 업장정화 내지 소멸이라는 크나큰 상을 받게 됩니다. 업장이 정화되면 복위자는 앞으로 있을 나쁜 과보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 복의 크기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원만한 성취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현지사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천도제는 고통 받고 있는 부모 조상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효행입니다. 나의 부모님, 조상님들께 살아계실 때 미처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영가와 무주교훈의 상상도 못할 고통을 알게 된다면 누구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을 구해주는 천도제가 바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 조상님의 크신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곁에 한번 있을 붓다회상의 천도제의 진정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 부디 한명의 악도 중생이라도 더 건질 수 있기를 우리 현지사에서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천도제를 들어 보셨습니까?

세계 유일 붓다회상 현지궁 현지사 천도제

1. 천도대상인 조상 영가 모두의 현재 있는 곳을 알려준다
2. 무주교훈, 지옥, 축생의 조상 영가의 완벽한 수배 (적어본 조상님 이외 본인이 알지 못하는 3~40명의 윤회 무주교훈 조상님을 추가 수배)
3. 보신부처님께 대한 공양이라는 대공덕의 자리를 마련
4. 불보살님과 성존님을 통한 복위자 주소 가택의 영적 청소
5. 부처님에 의한 업장정화와 소멸, 공덕만큼의 소원성취
6. 천도후 도량의 영적 청소
7. 조상님들은 현위처에서 한단계 좋은 곳으로 천도 (4번이면 거의 모든 조상님들이 하늘로 천도됨)
8. 천도 결과 확인 가능

《신간안내》

- 21세기 대안(代案) 불교사상 ‘위대한 영산불교’ 선불교, 위빠사나, 티벳불교 사상과 비교 논평, 수행론(수행방법), 수행목표(구원관), 불신관, 영혼체론, 생사관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한다.
- 새천수경 (80면 15,000원) 현지사 108 대장회문 수록, 정법불교에 입각해, 관음신행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비롯한 기존 천수경의 오류를 바로잡는다.